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8주일  
제33권 36호(다해) 2013-8-4

## [묵상]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레브란트, 17c, 베를린 국립미술관소장>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탐욕은 남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동생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을 가로채는 것,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자신의 것인 양 여기는 것,  
하느님께 인색한 부의 축적과 재산의 사용.  
인간의 불행이 이 모든 탐욕에서 시작된다면  
행복은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합니다.

재산이 많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느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재산의 주인도 인간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설 수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가는 길은  
한시도 설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쉽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니 좀 쉬자고 말할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되찾아 가실 것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후 8:00                                                                           |
| 목요일 | 성시간(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병자영성체(1째주)<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br>울뜨레아(4째주)                                                                                                                  | 저녁미사후<br>오전 10: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성경공부(그룹반)<br>M.E. Sharing(3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                                                                           |
| 토요일 |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br>소년 레지오 마리아<br>배튼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전 9:00<br>오후 6: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메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 • 제대회<br>-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30<br>오후 1:00<br>오후 1:45<br>오후 1: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김창민 시몬<br>(생)이종원 베드로, 이동현 안드레아, 갈유현 미카엘 & 라수전 보나 & 김파루 미카엘 & 김은지 릴리안                                                                                                                                                                                                                                                                           |
| 주 일<br>낮 미사 | (연)유정복 베네딕도, 임현기 마르코, 이용식 베드로, 장성녀, 이경용 야코브, 이현호 요한, 전시웅 요한, 김금침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주용범 아브라함, 정학순 발라라, 신세권 프란치스코, 소창영 & 소준주, 김경숙 마리아 & 강세황루카, 유절이 테로니카, 박종남 마리아, 이영자 올리아<br>(생)이윤조 클라라, 권오상 바오로 & 권순길 체칠리아 가정, 유현화 리디아, 김기준 안젤라, 손문화, 전하현 마리아, 김영길 안드레아 & 김복희 로사리아 가정, 최순옥 스텔라 & 이병순 크리스티나, 이근보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이복임 엘리사벳, 이명자 로사, 오마우라 수녀, 어장환 마르티노 사제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코헬렛(Ecclesiastes) 1,2;2,21-23

화답송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끌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해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5.9-1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루카(Luke) 12,13-21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입당 | 364                   | 191   | 175  |
| 봉헌 | 382                   | 268   | 270  |
| 성체 | might to save         | 284   | 287  |
| 파견 | Lod. I Lift Your Name | 245   | 191  |

##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 하느님 말씀과 문화

#### ▶ 성경의 번역과 더욱 광범위한 보급

성경 번역은 “구약 시대에 이미 시행되었다. 그 시대에 히브리  
말 성경 본문이 아람 말로 구전되었고(느헤 8,8.12) 나중에 그  
리스 말로 번역되었다. 물론 번역은 원문을 단순하게 글자 그  
대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문장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은 문화적 맥락의 변경을 수반하기 마련이  
다. 개념들도 동일하지 않고 상징들도 다른 의미를 지닌다. 왜  
냐하면 그러한 개념과 상징들은 다른 사상 전통, 다른 생활 방  
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동안에, 상당수의 지역 교회들에는 아  
직도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전부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오늘날 하느님  
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희망했던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여러 언  
어들로 번역하는 데에 투신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격려하며, 특히 성경을 더 많은 언어들로 번역하고 그것을 보  
급하고자 가톨릭 성서 연합(Catholic Bible Federation)의 활  
동을 지원하기를 권고합니다. 일의 본질상 그것은 가능한 한  
여러 성경 단체들과 협력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 ▶ 하느님 말씀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다

116).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하느님의 말씀과 문화들 사이  
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재확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사도2,1-13 참  
조).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들로 표현되  
고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지만 또한 동일한 말씀이 개별  
문화들의 경계를 변모시키고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에 친교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넓은 친교를 향해 가도록 초대하  
십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의 유한성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보  
편적인 실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 모든 이를 연결시키고,  
모든 이를 결합시키고, 모든 이를 형제가 되게 하는 것은 개별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  
을 선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이집트 탈출  
을, 곧 그리스도께서 계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의 척  
도와 우리의 제한된 표상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

## 하느님의 은혜를 안다면...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더운 여름날 베짖이는 나무 그늘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비웃지만,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베짖이는 개미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자는 베짖이가 아닌 개미에 비교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무라십니다.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 믿으며”(시편 52.9) 산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둔 많은 소출이 하느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농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씨가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햇살과 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부자들은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자기네가 소유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싹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십니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기서 일한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궁핍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부자들의 임무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나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꼬여들어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

지고 자식들이 불목하며 친족 간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그 재산을 모으려고 쏟은 “모든 노고와 노심”은 다 헛 것이 되고 맙니다.(제1독서) 자신이 거둔 결실과 성공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던 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제2독서) 신앙인은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현세적인 것, 곧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릴 때 가진 바를 흔쾌히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나눔으로 응답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보다는 돈에 더 희망을 거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느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안락사는 그릇된 자비, 아니 자비의 염려스런 ‘왜곡’이라고 봐야 합니다. 참된 ‘자비’는 타인의 고통에 함께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자비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66항 -

### 이번주 전례봉사회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곽수진<br>보나      | 신중철<br>아브라함 | 박희자<br>마리아 |
| 제1독서자 | 이범주<br>다니엘     | 이민상<br>요한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유보나<br>보나      | 권경아<br>요세피나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P.V.<br>3반 |

### 다음주 전례봉사회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이은지<br>수산나     | 정광미<br>프란치스카 | 남성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곽수민<br>히메리오    | 박진수<br>스태파노  | 이상철<br>크리스티나 |
| 제2독서자 | 최보나<br>보나      | 박혜경<br>레나타   | 이희경<br>크리스티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3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8월 ◆ 성모승천 대축일 : 15일(목)  
아침미사 오전 8시30분, 저녁미사 오후 7시30분

-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제2회(2013년-14년도)수혜자 발표  
작년 1월 가톨릭 자녀들을 위해 뜻있는 익명의 교우가 봉헌한 장학기금으로 설립된 백삼위장학회(회장 이재정 사도요한)가 올해로 두번째 수혜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진지한 심사를 거쳐 13명의 수혜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학업성적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가톨릭신자로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 축하합니다! ☺
- 운영위원 : 본당 신부님 포함 8명
- 선발된 수혜학생 13명 : 김혜린(울리아나), 박경민(미카엘라), 박메간(마가렛), 소윤선(요세피아), 오민디(테레사), 오보나(보나), 오에지(가브리엘라), 유청인(미카엘), 윤캐서린(카타리나), 이창희(세라피나), 정엘리스(클라라), 최보나(보나), 한지혜(소피아) -가나다 순-
- 장학증서&장학금(\$2,000) 수여식 : 8월11일(주일) 낮미사후
- 리셉션 & 뱅켓 모임 : 11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토요스시 장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 ◆ 남가주 제36차 여성 꾸르실료 참가자를 위한 기도  
백삼위 본당에서 올해 남가주 제36차 여성 꾸르실료에 1명의 수강자와 1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 일정 : 8월8일(목)~11일(주일), 포모나 꾸르실료피정센터
- 수강자 : 최순옥 스텔라 \* 봉사자 : 이명순 크리스티나
- 문의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 2013년 새회기 백삼위 성모회 첫모임
- 일시 : 8월11(주일) 오후 1시
- 장소 : 천교장
- 성모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신입 성모회장 권순길 케칠리아 ☎(310)365-2183

- ◆ LA대교구 다민족·다문화축제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28일 오전 10시
- 슬로건 : "Our Faith and Our Youth are Our Strength"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미사 전에 여러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으니  
오전 9시30분 전까지 도착하기 바랍니다.
- 기념책자 발행 및 배포 : 광고 및 도네이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LA대교구(Office of Ethnic Ministry : 3424 Wilshire Blvd. LA, CA 90010)로 신청하십시오.
- 문의 : Michael Lau ☎(626)487-1292  
E-mail : michaelauccc@gmail.com

- ◆ 제72차 남가주 한인 M.E.부부 첫주말강습 신청받습니다.
- 일시 : 9월13(금)~15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아시씨 피정센터
- 신청서와 등록비 : 부부당 \$50(8월15일 마감)
- 연락처 : 정동호 하삼바오로&정병옥 올리아 본당대표부부 ☎(310)780-9055
- ◆ 사목위원, 제단제장 임원명단 홈페이지 보내주세요.  
2013~2014년 새사목회 각 분과위원들과 활동단체(소공동체, 제단체, 산하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한국학교)의 임원명단(e메일주소와 전화번호)을 홍보분과 e메일 103skcc@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 가톨릭 신앙공부(Catholicism)에 초대합니다.  
전세계 여행을 통해 가톨릭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비디오 신앙 프로그램. 예술, 건축, 문학, 음악을 통해 가톨릭 전통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 대상 : 전신자(10주코스)
- 일시 :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오후 3시30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8월 한달동안 친교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교무금               | 장숙경 고천용 김성현 김영길 김원모 김일선<br>김찬구 김효진 나경흠 박봉성 박종열 서성용<br>양영관 엄세종 오세원 오일순 이미경 이병우<br>이용무 이일랑 임분필 임 순 임한나 장영진<br>전동훈 조준제 최태훈 한창주 | 합계 : \$4,035    |
| 주일미사 헌금 : \$2,408 |                                                                                                                             |                 |
| 성전헌금              | 장숙경 고천용 김영길 김원모 김찬구 김효진<br>나경흠 민기남 박봉성 서성용 양영관 엄세종<br>오세원 이병우 이용무 이일랑 임 순 임한나<br>전동훈 조준제 최태훈 한창주                            | 합계 : \$3,855    |
| 감사헌금 : 이민상 안연숙    |                                                                                                                             | 주보광고 후원 : \$250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견진교리반 학생모집 (2013~2014 학년도)

새학년도 주일학교 시스템 운영이 전면 바뀌면서 견진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접수 : 본당 사무실(방학기간동안)
- 첫모임 : 8월25일 오전 10시30분 회의실 -부모 참석)
- 문의 : 신동운 벤첸시오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 ◆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 모집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본당 마라톤 동호회가 14세 이상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 : 사우스 하이스쿨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남가주 소식

### ◆ 신달자의 '문학과 종교' 초청 강의

- 일시 : 8월4(주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한국순교자 성당(웨스트민스터)
- 강사 :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 문의 : 정찬열 시몬 ☎(714)530-3111

### ◆ 동정마리아 탄생축일 '봉헌을 위한 준비 특강'

- 일시 : 8월7일(수)~8일(목) 오후 7시
- 장소 : LA 성바실 본당 지하(637 S. Kingsley Dr.)
- 대상 : 전신자 \* 강의 : 이용혁 요한 신부
- 준비물 : 묵주, 성가책 (회비 \$5)
- 문의 : ☎(213)255-6336
- 주관 : 푸른군대 미주평의회(지도신부:박대덕 스테파노신부)

### ◆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8월11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신청 및 문의 : 정시문 사무국장 (714)530-3111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 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 CLC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23일(금)~25일(주일)
- 지도 : 정구평(예수회 신부)
- 장소 : Prince of Abbey(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
- 신청마감 : 8월10일,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                                         |
|-------------------------------------|-----|--------------------------|-----------------------------------------|
| 차 장                                 |     |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                                         |
| 차 장                                 |     |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br>539-3377    | 1   | 이순자 비비안나<br>213-675-0498 | 유현자 안나 483-5476<br>8/3(토) 오후 6시         |
|                                     | 2   | 김찬구 요한<br>701-6343       | 민원희 안나 634-9631<br>8/10(토) 오후 7시 강당     |
|                                     | 3   | 박현희 프란치스코<br>592-4739    |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br>8/9(금) 오후 8시 성당   |
| 토런스 서<br>엄혜은<br>도로테아<br>200-0512    | 1   | 강인모 테오도시오<br>780-3258    | 강인모 테오도시오<br>8/23(금) 오후 7시 할리웃보울        |
|                                     | 2   | 심옥방 미카엘라<br>999-5808     | 홍광선 요셉 999-5808<br>8/10(토) 오후 6시        |
|                                     | 3   | 정광미 프란체스카<br>617-1132    |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br>8/9(금) 오전 10시30분   |
| 토런스 남<br>최옥희<br>데레사<br>508-2912     | 1   | 박문주 엘리사벳<br>968-8280     |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br>8/16(금) 오후 7시 강당   |
|                                     | 2   | 최순옥 스텔라<br>951-4710      | 최순옥 스텔라 951-4710<br>8/13(화) 오전 11시      |
|                                     | 3   | 조정선 마리아<br>945-8204      | 조정선 마리아 945-8204<br>8/10(토) 오후 6시       |
| 토런스 북<br>조화숙<br>안젤라 213<br>272-8393 | 1   | 정병욱 율리아<br>404-1607      | 권오상 바오토 365-2183<br>8/19(월) 오후 7시       |
|                                     | 2   | 1반과 같음                   |                                         |
| 하버 카슨<br>윤희동<br>안토니오<br>365-7871    | 1/2 | 조소영 수산나<br>804-7645      |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br>8/18(주일) 오후 1시 피크닉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남정희<br>베네딕다<br>384-3289    | 1   | 박종선 리비나<br>213-700-6983  | 오영섭 스테파노 518-1736<br>8/16(금) 오후 7시      |
|                                     | 2   | 김명재 아가다<br>866-8778      | 김명재 아가다                                 |
|                                     | 3   | 정종미 클라라<br>818-1799      | 정종미 클라라 818-1799                        |
|                                     | 4   | 이귀란 아네스<br>617-3568      | 이귀란 아네스 617-3568<br>8/13(화) 오전 10시30분   |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 / 반장 회의 | 오후 1시 |
|-------------|-------|

### 다음주 단체모임

|          |  |
|----------|--|
| 제단체 모임의날 |  |
|----------|--|

## 구인

Paramounttariff.com (사무직 풀타임)

FMC규정에 따른 세계 유수의 회사임. 사우스베이

지역.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영주권자

\* 이력서 e메일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mailto:support@paramounttariff.com)

## 신앙생활의 진실한 모습...

☞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자 본당에서 활동도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신앙생활에 지쳐갑니다. 일은 많이하는데, 정작 제 삶에는 진실함이 없는 듯 느껴집니다. 진실하지 못한 제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죄책감도 느껴져서 기쁘지가 않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로 다가오곤 합니다. 물론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며, 두렵고 불안해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응원한다면, 적어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보려 할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보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

## 세상살이와 청원기도

저의 기도는 여전히 청원기도가 많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바라고 매달리기보다 감사기도가 많아진다고 하던데, 저의 신앙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청원의 내용은 가족의 건강과 평화와 안녕, 관심 있는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 그리고 상당 부분은 나 자신의 세상살이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에 있을 때는 일의 성취나 승진, 보직 등을 앞두고 청원을 하였고, 변호사 일을 시작해서는 사무실의 번창과 맡은 일의 성취를 위하여 청원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검사 시절 직접 중요사범을 단속할 때면 수사관들을 지휘하여 현장으로 내보낸 후, 늦은 밤 검사실에 혼자 등그러니 앉아 결과를 기다리며 “하느님, 이 범죄꾼들이 현세에서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면

수사관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제법 모양새 있는 청원기도를 드렸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한 치도 더 빨리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미래의 털끝 하나도 미리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온전히 하느님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미래의 일에 관심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느님께 문의하고 청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청원기도거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느님께 드리는 청원은 피상적으로 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청원도 그것이 제 눈에 그렇게 보일 뿐,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주셨다는 확신 같은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 배고픈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칭얼거리는데 아이의 엄마가 밥을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아이의 눈에는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청원을 120% 들어준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청원하는 저의 눈높이와 청원을 들어주시는 하느님의 눈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눈높이에 따라 하나의 현상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 이것은 제 신앙이 세월을 겪으며 터득한 소박한 지혜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하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늘도 저는 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에 관하여 하느님께 청원을 드리며 하느님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마태 7,9 참조) 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처럼 믿으면서 말합니다.

◆조동석 베네딕도 / 변호사

## - 그런 친구 -

살면서 늘 실수하고 잘못도 많았지만 아주 가끔은 칭찬도 있었지. 칭찬은 순간이나 잘못했을 때만 천만 개의 눈이 나만 보는 거 같아 두려웠기에 잘한 일에 박수쳐주기보다 실수 한 일에 한번 눈감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 큰 격려며 위로더군요. 친구는 뭔가 눈감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몰라.

◆이영 아녜스 / 수필가